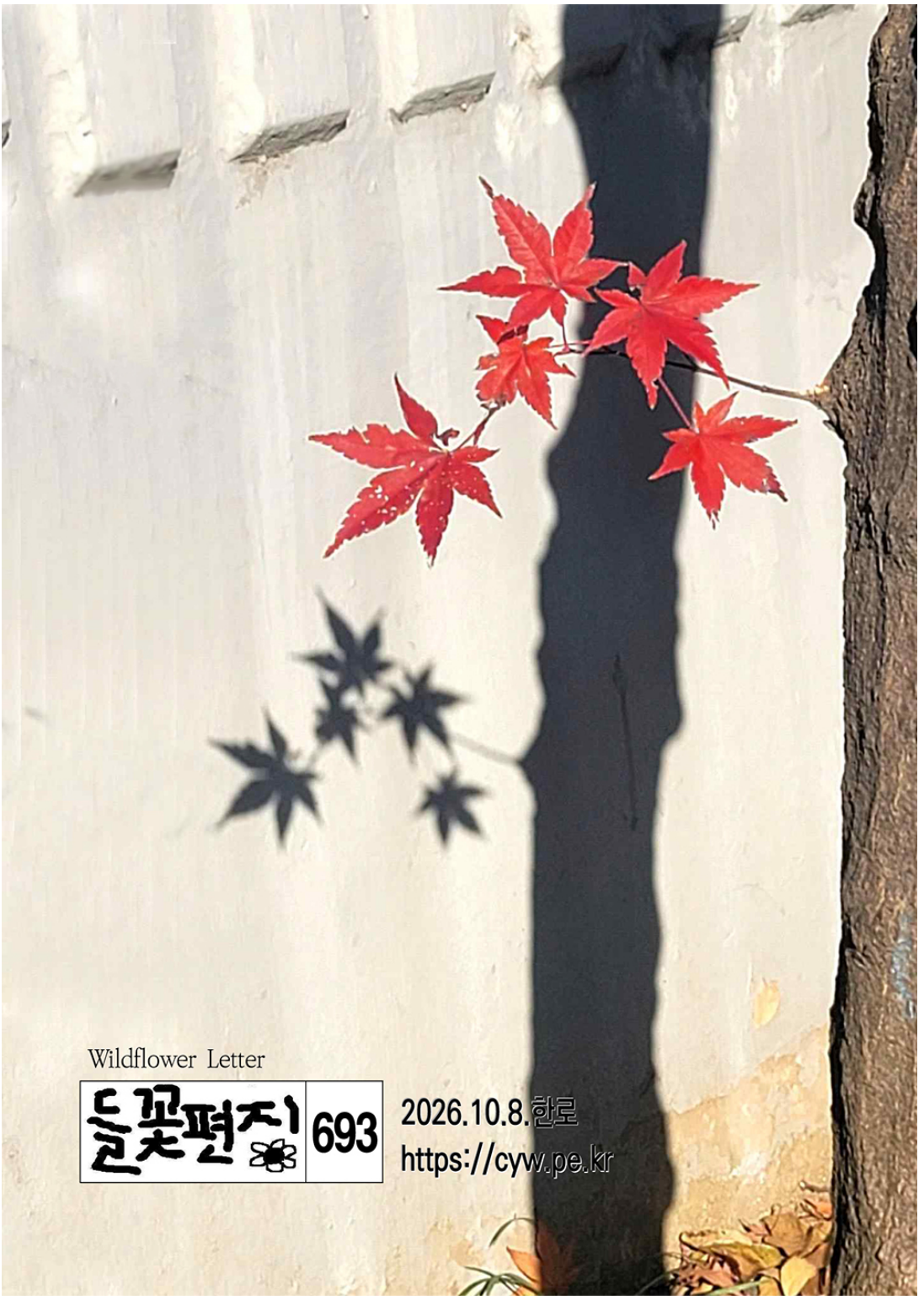


Wildflower Letter

# 들꽃편지 693

2026.10.8.한로

https://cyw.pe.kr

□ 사랑하는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 보는 사람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백로(白露)와 한로(寒露)는 모두 이슬 이름입니다. 이슬은 공기중의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백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도록 하나님께서 무난한 흰 이슬을 내리는 가을의 입구에 들어선 절기입니다.

반면에 한로는 이제 그만 성장을 멈추고 지금부터는 안으로 영글어서 마무리~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말씀하시며 찬 이슬을 내리는 절기입니다.

한로가 지나면 이슬은 서서히 서리로 바뀌기 시작하고 서리를 맞은 나뭇잎사귀들은 알록달록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서리 맞은 국화는 더욱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절이 한로에 이르면 하늘은 가없이 높아지고 바람은 차가워지고 공기는 맑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눈도 밝아지고 귀도 맑아져 가을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들꽃편지 가족 여러분 한로 절기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의 눈은 밝아지고 귀는 맑아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밝아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눈 뜬 소경이 회당으로 달려가 뜬 눈을 보여주니 사람들은 축하해 주기는 커녕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뜨게 해 준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눈을 멀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못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고 맑은 한로의 기운을 받아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가을에 보는 사람이 되고 싶은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작년이었던가,
중년의 부부가 가게에 들어오셨는데
두 분의 금슬이 어찌나 좋던지,
부군이 한마디 하면 부인이 까르르하고
부인이 한마디 하면 부군이 푸하하 했다.
부창부수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지 싶었다.
그분들 모습에 나까지 키득거렸다.
그분들이 나가고 난 후, 난 '웃음'을 썼다.
(부인은 마침 롱 원피스를 입고 계셨다.)

켈리 허욱
https://www.instagram.com/h_e_o_w_o_o_k

#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이런저런 바깥 것들로 해서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겉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
자선을 베풀되 자기가 자선을 베푼다는
생각조차 없이 자선을 베푼다는 그런 말이다.
왼손이 하는 짓을 오른손이 모른다는 말인데
그 말은 왼손이 하는 짓을 왼손이 모른다는 말과 같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디도서1:15)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84 고집 피우지 않고

경비로 일하는 아파트에 외곽 청소 아저씨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곤 합니다. 월급은 적고 하는 일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청소 하시는 아저씨가 왔습니다. 사실은 아저씨가 아니고 70이 넘은 저처럼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청소 방법과 분리수거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릴께요."
"아뇨 왕년에 다른 곳에서 다 해봤슈."
"그래도 우리 아파트 특성과 방법이 있어요."
"괜찬유 됐슈."
참 고집도 대단합니다.

오후 3시 반 청소 아저씨 퇴근 후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생각대로 엉망입니다.
속이 터집니다.
내일 아침은 관리소장님과 경비반장님 한바탕 큰소리칠 것이 뻔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버린 곳을 묵묵히 정리하면서
나도 주님 앞에 이런 고집이 있을까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고집 피우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제산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싼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 최용우詩 -야단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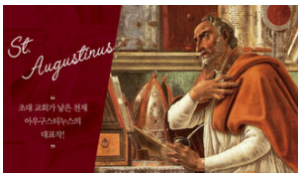
웅성웅성 자글자글 후끈후끈 도란도란 푸릇푸릇 꿈틀꿈틀 산들산들 새록새록
보슬보슬 팔랑팔랑 냐옹냐옹 야옹야옹 와들와들 바들바들 살금살금 아옹다옹
까불까불 오물오물 딸랑딸랑 새근새근 콩닥콩닥 영차영차 꾸벅꾸벅 술렁술렁
펄럭펄럭 펄렁펄렁 삐약삐약 깨록깨록 개굴개굴 개골개골 둥실둥실 보들보들
나붓나붓 지지배배 허덕허덕 보글보글 터벅터벅 투덜투덜 쫄쫄쫄쫄 아삭아삭
너울너울 까딱까딱 비실비실 포동포동 꿀렁꿀렁 바글바글 와장창창 삐뚤삐뚤
살랑살랑 허니허니 나풀나풀 능청능청 토닥토닥 두근두근 끼리끼리 벌컥벌컥
방울방울 주렁주렁 첨벙첨벙 퐁당퐁당 한들한들 어리둥절 재잘재잘 점벙점벙
찰랑찰랑 파릇파릇 송골송골 웽웽웽웽 끈적끈적 어질어질 풍덩풍덩 지글지글
꾸물꾸물 끄물끄물 후두두둑 꼬록꼬록 번쩍번쩍 따끔따끔 우렁우렁 찐득찐득
우글우글 스멀스멀 시끌벅적 싱글벙글 긁적긁적 아슬아슬 뱅글뱅글 덩실덩실
바삭바삭 쑥떡쑥떡 삐쭉삐쭉 느릿느릿 가물가물 반짝반짝 울렁울렁 시름시름
들쑥날쑥 대롱대롱 뭉게뭉게 뭉실뭉실 몽실몽실 나긋나긋 울긋불긋 주섬주섬
슬금슬금 끼적끼적 고분고분 지글지글 팔짝팔짝 알콩달콩 소록소록 흥얼흥얼
쿵쾅쿵쾅 후들후들 유들유들 부글부글 깜빡깜빡 오락가락 또각또각 뚜벅뚜벅
수군수군 조롱조롱 엉금엉금 오손도손 사각사각 알록달록 가만가만 속닥속닥
생글생글 덜컹덜컹 히죽히죽 지긋지긋 어둑어둑 빨랑빨랑 하늘하늘 달랑달랑
징글징글 살랑살랑 무럭무럭 비뚤비뚤 덩실덩실 빠글빠글 우걱우걱 초롱초롱
콜록콜록 모락모락 뜨끈뜨끈 야들야들 소복소복 오들오들 글썽글썽 날름날름
건성건성 조심조심 포근포근 동글동글 또박또박 멀뚱멀뚱 허둥지둥 헐래벌떡
홀짝홀짝 뉘엿뉘엿 자장자장 나풀나풀 조곤조곤 아장아장 종알종알 응애응애
팔딱팔딱 와글와글 다정다감 깍깍깍깍 바짝바짝 딸랑딸랑 뽀독뽀독 뽀득뽀득
몽글몽글 빙글빙글 부릉부릉 개꿀이네 쉬엄쉬엄 깍뚝깍뚝 덜렁덜렁 사뿐사뿐
차곡차곡 호락호락 따끈따끈 엄벙덤벙 후다다닥 부들부들 으슬으슬 시들시들







# 15권 인류의 두 갈래 계보




## 400. 인류의 두 갈래 계보의 시작과 저마다의 마지막

인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누고 그들을 두 나라 또는 두 개의 인간 사회라고 불렀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영원히 군림 하며 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하나는 악마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인류 최초 조상의 맏아들로 태어난 카인은 인간의 나라에 속했고, 그 아우인 아벨은(창4:1-2)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고전15:46)고 했다. 원죄를 받은 혈통에서 난 사람은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하고 육욕적인 사람이며,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만 선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두 나라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세상 백성이 먼저 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다음이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고, 은혜로 예정되었으며 선택받았고, 땅에서는 은혜로 순례자가 되었고 하늘에서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도 원죄로 가득한 덩어리에서 태어난 자였지만,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신 것이다.(롬9:21)

## 401. 육체에 따른 아들과 약속에 따른 아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사54:1)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갈4:22-31)

### 402.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자연 본성은 인류 본성이 죄로 더럽혀졌기에 그에 대한 단죄를 받아 그 후손 또한 참된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하나님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은혜의 자녀이며 자유로운 나라 백성들을 상징할 뿐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동지들을 나타낸다. 이 백성들은 영원한 평화 속에 사사로운 이기심이나 아집 없이 서로 섬기며, 변하지 않는 공동의 선을 두고 사랑으로 함께 산다.(행4:32)

### 403. 지상 나라의 전쟁과 평화

지상 나라는 최후의 형벌로 단죄를 받을 즈음에는 나라라 할 수 없으므로 영원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 나름대로 선한 점이 있으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즐긴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상 나라는 다툼과 전쟁과 분쟁으로 분열되는 일이 잦으며, 기껏 얻어내는 승리 또한 많은 죽음을 몰고 오거나 오래가지 못한다. 대립된 부분들 자체가 죄악에 사로잡혀 다른 백성들을 이기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는 곧 오만으로 가득 차서, 그 승리는 끝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 404. 지상 나라의 첫 건설자

지상 나라를 세운 카인은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다. 그는 시기심을 견디지 못해, 영원한 나라 백성이며 지상을 순례하는 나그네인 자기 아우를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오랜 뒤에 로마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레무스가 그의 형 로물루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로마는 많은 민족을 지배하며 지상 나라의 으뜸이 되었지만, 그 나라의 처음 성벽은 아우의 피로 물들었다.

### 405. 죄의 벌로 받은 병약함

병약함은 자연 본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결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6:12-13)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스럽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영혼을 도우시며, 사도가 가르치듯이(롬6:12~13) 죄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깃들어, 우리가 죄에 복종하여 그 죄가 우리의 죽을 육신 안에 군림하거나, 몸의 각 부위를 마치 불의의 무기처럼 죄악에 내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참된 선으로 향하며, 하나님 지배 아래 있게 됨으로써 악을 행하는 일을 멀리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평화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완전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죄 없는 영원한 평화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 406. 카인의 죄의 원인과 그 집요함

"카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요일3:12) 하나님이 카인의 제물을 반기시지 않은 것은 그가 제물을 분별없이 나누었기 때문이며,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정작 자신의 희생은 전혀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올바른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릇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침으로써 그 대가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며, 그 예물로 하나님 마음을 얻어 그것으로 자신의 죄와 사악한 마음을 낫게 하려는 것도 카인처럼 하는 것이다.

### 407. 처음으로 카인이 나라를 세운 이유

지구상에 남자가 오직 넷만 있었을 때, 그나마도 형이 동생을 죽인 뒤라 세 사람밖에 없던 시절,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카인이 나라를 세웠다는 성경의 기록은 믿을만한 기록인가? 성경의 역사를 쓴 사람은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 모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만 썼다는 것이다. 성령이 성경을 쓰게 했으며,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자손들을 세대를 거치며 차례로 확인하면서 아브라함까지 내려가고, 다시 아브라함 혈통에서 하나님 백성에 이르며, 다른 민족들과 다른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다스릴 나라에 관련된 모든 일을 미리 보여주거나 예언하고, 성령에 힘입어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이 나라를 세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견하는 일이었다. 성경은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모두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시에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더욱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을 세웠을 것이다.

### 408.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 인간은 오래 살고 덩치가 컸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아도 430년 동안 그 후손이 60만명이나 늘어났다.(출12:40) 그러므로 카인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들의 수명이 아주 길었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들은 덩치도 컸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인 베르길리우스도 그의 시에서 논밭 경계에 박혀 있던 크나큰 돌을

고대의 어떤 용감한 사나이가 싸움 도중에 빼 들고 뛰어가면서 던졌다는 부분이 있다. "지금 보는 덩치로는 장정 열두명이라도 그 돌을 들지 못했으리라."

### 409.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의 성경 사이에서 사람들의 수명

'히브리어성경'은 제롬이 직접 옮긴 라틴어성경으로 흔히 '불가타역' 성경이라고 한다. '우리의 성경'은 '70인역 성경'을 말하는데, 기원전 3세기 중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왕궁 도서관장 네메트리우스가 그리스어에 능통한 이스라엘 12지파 각 6명씩 총 72명의 학자를 알렉산드리아에 모아 그들을 가두어 두고 70일 동안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한다. 두 성경에서 대홍수 이전의 인물들의 나이가 약 100살 정도씩 차이가 난다.

### 410. 므두셀라의 나이

성경에는 므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였고(창25장),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창5:28), 합치면 355년이 된다. 여기에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 600세(창7:6)를 합하면, 대홍수가 일어난 해 므두셀라의 나이는 무려 969세나 된다.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성경은 므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167세라고 나온다. 그렇게 계산하면 므두셀라가 대홍수 뒤에도 무려 14년을 더 살았다는 의문이 생겨난다. 성경에는 방주 안에 있었던 8명 빼고는 대홍수 때 모두 죽었다 했으나 므두셀라는 그 8명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었다.

### 411. 세상이 열린 첫 시대 인간이 오래 살았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의 1년은 아주 짧아서 우리 1년이 그때의 10년과 맞먹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90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것을 90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플리니우스같은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저마다 1년으로 보고 1년을 4년으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견들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 412. 해를 세는 법에 대해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

사실 어느 쪽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이를 더하고 빼는 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빙성 여부나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번역이 이루어진 원어 쪽을 믿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어 사본 셋과 라틴어 사본 하나와 시리아 사본 하나가 서로 일치하는데, 모두 므두셀라는 대홍수가 일어나기 6년 전에 죽었다고 전한다.

### 413. 첫 시대에서도 요즘 시대에서도 한 해의 길이는 같다

성경은 대홍수가 일어난 해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한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창7:10-11) 만일 그들의 10년이 우리의 1년과 같았

다면 무슨 수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27일에 대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다음 대홍수가 끝났을 때 '7월 17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 마루에 머물렀다. 물은 10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10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창8:4-8)고 할 수 있었겠는가?

### 414. 첫 시대의 남성은 '아이가 태어났다' 기록할 때까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믿어야 하는가? 90세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90세까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믿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관계도 가졌고 자녀도 태어났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기록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담의 아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고'(창5:6) 그럼 셋은 105년 동안 여성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믿어야 하는가? 아니다. 에노스가 '맏아들'이라는 기록이 없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마1:2) 어째서 맏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말하지 않는가? '이삭은 야곱을 낳고' 형은 '에서'인데 동생인 야곱으로 계보가 이어진다.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의 장자는 유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셋'은 '에노스'를 낳기 전에 얼마나 많은 다른 자식을 더 낳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다.

### 415. 첫 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른 혼인법이 있었다

인류는 흙으로 만든 남자와 그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가 처음으로 맺어진 뒤 남녀의 결합으로 아이를 낳아 자손을 늘려야 했다. 그러나 이 둘에게서 태어난 사람 말고는 다른 인간이 없었기에 남자들은 자신의 누이를 아내로 삼았다. 창세기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딸과 아버지'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들도 나온다.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른 기준의 혼인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혈육끼리의 결합이 죄가 된 것은 훨씬 뒤에 종교에서 금지하면서부터이다. -계속



# 계시와 성경



## 1. 계시와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啓示 Revelation)는 우주만물과 자연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반계시와, 선지자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기록'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이나 표현은 그 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내용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똑같이 알려지도록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성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주로 임했는데, 그렇다고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요 21:25)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4명이 쓴 4복음서가 들어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복음서는 10종도 더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글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어떤 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라는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증하여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동안 성경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증명해놓은 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몇 가지만 증명해 보겠습니다. (8468)

## 2. 성경의 증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계시를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 성경 자체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과 승리를 기록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중요한 기억으로 남기라고 명령하십니다.(출17:14)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율법과 규례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출24:3-4, 7절과 출34:27)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방황을 마치고 모압 평야에 이르러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했을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민수기 33: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입에 두어 훗날 그들이 타락할 때 그 노래가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신31:19,22)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도 나의 말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 예언자들의 글에 계속 나옵니다.(사8:1, 사30:8, 렘25:13, 렘36:2, 겔24:2, 단 12:4)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추가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으라고 엄중히 요구하십니다.(신4:2, 신12:32, 잠30: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렘30: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합2:2)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 (8469)

## 3.성경의 저자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으로(구어체로)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습니다.(시147:19-20, 시103:7).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모든 규례

와 법도를 조근조근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적었습니다.(출33:11) 모세는 율법 한 조문 한 조문마다 '야웨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옴표" 안에 넣어 구어체로 기록합니다.

예언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음을 알고(삼상3장, 사6장, 렘1장, 겔1-3장, 암3:7-8:7:15 등등...) 자신들이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사5:9, 사6:9, 사22:14, 사28:22, 렘1:9, 렘3:6, 렘20:7-9 겔3:16,26,27, 암3:8 등등) 예언자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암3:7, 창18:17)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을 대언할 때 "야웨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혹은 "야웨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혹은 야웨의 '말씀' '환상' '계시' 등의 표현으로 시작합니다'(사1:1, 사2:1. 사8:1, 사13:1, 렘1:2, 렘4:11, 겔1:1 겔2:1 겔3:1, 단7:1, 암1:3,6,9 등등...) (8470)

## 4. 예수님의 증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구약성경의 계시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이사야, 다윗, 다니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라는 사실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마8:4, 마15:7, 마22:43, 마24:15)

사도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계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명확한 언어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폐해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요10:35) 그리고 그분 자신이 직접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마5:17, 눅6:27)

사도 베드로는 예언(계시)의 말씀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 담긴 예언이 예언자들 자신의 뜻이나 해석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움직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고 합니다.(벧후1:19-21, 벧전1:10-12)

성경은 수많은 저자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성경 전체는 유기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며, 또한 기록된 형태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성경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을 이루는 책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연구할 때 그 책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 (8471)

## 5. 제자들의 증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글을 써서 남긴 적은 없으시지만(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신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은 알 수 없음) 그러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마10:1, 막3:13, 눅6:13, 요6:70)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돕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요14:26), 장차 올 일들을 열려주시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요16:13)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를 증언하는 이는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요15:26-27)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살던 동족들에게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마28:19, 막16:15, 행1:8)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기록되어 모든 세대에 보존되어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되었고,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에 대해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글로 기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진리를 전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말과 펜(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8472)

## 6. 영감과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 '영감'이 아닙니다. 계시를 기록할 때 인간 저자에게 작용했던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영감(靈感, inspiratie, theopneusite: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 있음이라는 뜻 inspinatio)'이라고 합니다.(딤후3:16)

2.영감은 신령할 영(靈) 느낄 감(感)을 써서 신령한 기운이나 감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①유기적 영감설** (Organic Inspiration): 성령께서 저자의 인격, 성품, 언어, 교육 배경 등을 그대로 활용하시면서도 오류가 없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다는 견해로, 보수적 개신교 신학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②기계적 영감설** (Mechanical Inspiration): 저자를 단순한 로봇이나 필기구처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말로 불러주셨고(구술), 인간 저자는 이를 기계적으로 받아 적기만 했다는 주장이며 '축자영감설'이라고 합니다

**③사상 영감설** (Thought Inspiration): 하나님은 사상이나 개념만 주시고, 언어적 표현은 저자 임의로 써서 다소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 창조된 모든 것 안에 내주하십니다.(창1:3, 시33:6, 시104:30)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전능자의 숨결로 살아갑니다.(욥33:4, 시139:1-16)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법 모두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 때로는 두 가지, 세 가지가 함께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8473)

## 7. 성령의 감동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벧후1:21)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언을 하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구별이 됩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롬8:14) 인도하시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신자들 모두가 누리는 분깃으로 이는 이성의 조명과 의지와 감정의 지배를 포함하며,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열망과 능력을 받게 해 줍니다. 그러나

'감동하시는 성령'님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마1:22, 마2:15,17, 마23:3, 마4:14...)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에서 더욱 명백해집니다.(눅1:70, 행1:16, 행3:18, 행 4:25...)

'성령의 감동'은 뜬금없이 아무에게나 벼락 떨어지듯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기록했지만 자신들의 자의식과 더불어 스스로(zelven) 말했습니다.(벧후1:21) 예언자나 사도의 직분을 위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구별되고 준비되었으며 그 사역에 합당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렘1:5, 행7:22, 갈1:15) 그들은 계시를 받을 때도 기록할 때도 그것이 계시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8474)

## 8. 구약성경의 형성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성경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완전한 형태로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순서는 연대순이 아닙니다. 내용상 관련 있는 책들을 모아 분류한 것입니다. 처음 쓰여진 '욥기'에서 마지막 쓰여진 '하박국'까지 약 900년에서 길게는 1500년의 긴 간격이 있으며 매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매우 다양한 저자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쓰여졌습니다.

모세 시대까지는 혈연관계와 가족, 의식, 전통으로 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기록된(성경)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늘어나고 그들이 각종 우상숭배와 미신에 빠지면서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 모세가 글을 씁니다. 모세는 그때까지 구전으로 전해져 왔거나 아니면 이미 있던 어떤 문서들을 모두 모아서 종합적으로 경(經)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으면서 경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에스라가 성전 돌 틈에 숨겨져 있던 경들을 모두 수집해서 50여명의 학자들을 동원해 기원전 444년에 새롭게 성경 편찬작업을 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우리가 읽는 실제 언어로 기록한 사람들은 에스라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족장과 맺으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8475)

## 9. 신약성경의 형성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1세기 말에 쓰여졌습니다. 신약성경은 옛 언약(구약)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구약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출연을 일관되게 예고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받침대와 동상, 자물쇠와 열쇠, 그림자와 본체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서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4복음서로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네 명의 저자가 네 명의 시각으로 기록합니다. 마치 한

가지 사건을 네 개의 신문사가 각각 자기 신문사의 논조로 기사를 써서 보도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쓴 21편의 편지는 1세기 말에 유대교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종교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서 같은 것입니다. 예수 승천 이후 예루살렘교회의 박해를 받았던 나사렛파와 새로 믿게 된 이방인들과 아시아에 세운 교회들과의 소통으로 오고 간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는 구약 예언자들의 책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아래 역사적 상황을 계기로 저술된 온 인류가 받아들일 보편적인 성경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들이 깨닫는 거룩한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8476)

## 10. 성경의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경(正經, Canon)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39권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권위 있는 말씀(히브리 성경)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공식 추인한 것은 AD 90년경 유대인 랍비들이 모인 얌니아(Jamnia)공의회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유대인이 인정한 39권을 개신교 구약 정경으로 채택합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읽히던 사도들의 글 중, 이단의 가짜 문서에 대응하기 위해 정경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AD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27권의 목록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고 정경으로 공포하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진 신적 권위를 교회가 분별하여 '이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정경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했습니다. ①사도성, 영감성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글인가? 예수님의 제자(사도)나 그와 긴밀한 인물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가? ②내용의 일치성 -기존의 성경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와 신학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가? ③보편성 -초대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널리 읽히고 예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가? ④영적 능력 - 읽는 이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며, 인간 구원의 진리를 명확히 담고 있는가? ⑤그리스도의 인증 -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직접 권위 있게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는가? (8477)

# 11. 성경의 변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유는 '시대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조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은 일점 일획도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사물도 없으니까요. 변하지 않아서 비싼 금(金)도 과학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느리게 조금씩 변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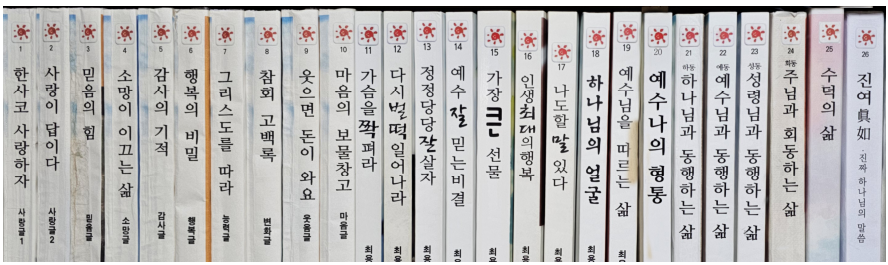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원본'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필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구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9-10세기 것이며, 신약성경은 4-5세기로 구약성경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성경이 원본 그대로 필사되었으면 좋았을터인데, 긴 역사를 거치며 시대의 변화에 노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음과 구두점이 추가되었다든지, 장과 절이 구분되었다든지, '목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단어를 살짝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성경은 그리스어(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고대 언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자료를 보면 2026년 7,393개 언어 중 일부라도 번역된 언어는 4,121개이며, 신구약 모두 번역된 언어는 795개라고 검색됩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확인된 것만 20종이나 됩니다. 각 교단과 교파에 따라 번역 기준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성경만 100%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한글 번역 성경 15종류를 쭉 펼쳐놓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 (8478) ⓒ최용우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00-350쪽 내외의 책 총27권 중
2026년 현재는 15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꽃 (사진:최용우)

## 도담정 연꽃

수목(木)원이니 목(木)요일에 국립세종수목원에 다녀왔다.

이제는 수목원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버스로 가는 것보다 편하고 익숙하다. 마치 수목원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수선한 상태가 몇 달간 지속되는 것을 보고 매월 1회씩 가던 수목원에 한동안 안 갔었다. (잘은 모르겠지만)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텐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5월 이후 세달 만에 갔는데, 내 생각을 읽었나? 그새 '환경정리'를 새롭게 해서 수목원이 깔끔하게 싹 바뀌어 있었다.

수목원에 가면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을 본따 만든 한국전통정원(궁궐정원) 도담정에는 꼭 간다. 연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부용(연꽃)정이라 하는데, 세종은 '도담정'이다. 도담정은 열십(十)자 모양의 정자이다.

도담정에 앉아서 마치 조선시대 왕처럼 지긋이 연못을 내려다보았다.

# 돌고 돌고 돌고



불타오르던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어 느새부터 아침저녁으로 이불을 끌어당길 만큼 사그러들었다. 확실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맞다는 증거이다. 지구는 태양을 타원형으로 도는데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와 태양에서 가장 멀 때의 차이가 500만 km이다.

지구가 타원형으로 공전하는 것을 케플러 제1법칙이라고 한다. 지구가 완전 원형으로(다른 행성들도) 태양을 돌 수 없는 이유는 태양도 이미 거대한 우주 소용돌이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고 있는 태양을 지구가 돌기에 완전 원형이 안된다.

달도 마찬가지다. 달의 궤적도 원형이 아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를 달이 돌기 때문에 완전 동그란 원형이 나올 수 없다. 숫자 영(0)을 자세히 보면 완전 o가 아니라 0 타원형이지 않는가? 우연이 아니다. 하하 재미있다.

# 오디세이아




지난 2월 '왕과 사는 남자' 개봉일 아침 조조 영화를 봤더니 그 후로 영화가 대박이 나서 관객 16,922,332명 역대 2위에 등극했다. 음 내가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대박 나는 것을 보니 나는 행운의 싸나이인가? 내가 아니라 그녀 때문인가?

딸1,2호가 적극 추천하여 '오뒷세이아' 영화를 그녀와 함께 토요일 아침 조조로 봤다. 이 영화도 내가 봤으니 분명 1천만 넘을 거야.(뭐라고? 이미 넘겨버렸다고?) 영화 시간이 거의 3시간이나 되어 중간에 화장실 안 가려고 집에서부터 '물' 금식을 하고 갔다.

오디세이아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어서 영화의 흐름도 짐작이 되었고 예상대로였다. 놀란 감독의 연출 능력이 놀라워 3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서양 역사를 이해하려면 필수적으로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어야 한다.

## 스트레스 해소



생수를 다 먹고나면 빈페트병을 발로 밟을 때 나는 소리가 재미있다. 힘이 쎈 내가 밟으면 빠드드득, 콰직! 꽈라락 과라락, 와그락 와그락, 콰지직직, 사정없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힘차게 난다.

그런데 그녀가 밟을 때는 바스락바스락, 브스락뿌스락, 파스스시시식, 뿌드득... 소심한 소리가 난다.

페트병을 강하게 밟고 찌그러뜨리는 행위와 소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내면의 공격성과 긴장감을 외부로 분출하는 즉각적인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한다. 힘을 주는 대로 즉시 모양이 변하고 큰 소리가 나는 페트병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시각적·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뇌는 소소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생각지 못한 페트병의 순기능?

음하하.. 다 자근자근 밟아줄 끄야~

## 금강 한 바퀴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오후 3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섰는데, 그가 살던 쾨니히스베르크의 주민들은 정해진 길에 정해진 시간에 칸트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를 '인간 시계'라며 자기들의 시계를 맞췄다고 한다.

나는 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람쥐처럼 챗바퀴를 도는 성격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새로운 산책길을 많이 개척한다.

오늘은 →시청→이응다리 남쪽 광장에서 북쪽으로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 국책단지→햇무리교 건너→국회의사당 옆→세종수목원 옆→이응다리 북쪽 진입로로 들어와 →시청 앞에서 →집까지 약 1만보 8km 거리의 산책로를 개척했다.

금강을 바라보면서 걷는 시원시원한 길이다. 내일은 반대로 금강의 남쪽으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응다리와 금남교를 크게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 또 한 바퀴



오늘은 집에서 출발하여 →금강의 남쪽으로 물길 따라 내려가 →날벼락공원 →금남대교 건너 →독락정공원에서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 →박물관단지 옆 →이응다리 북쪽 진입로로 들어와 →시청 앞에서 집까지 약 8천5백보 7km 거리의 산책로를 개척했다.

그저께 반대로 금강의 북쪽으로 걸었을 때보다 거리가 약 1km 정도 짧았다. 다음에는 금남교가 아니라 한두리대교까지 가봐야겠다. 그러면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조금 더 걷고 싶을 때 햇무리교와 금남교까지 진짜 크게 한 바퀴 돌면 약 15km 정도 나올 것 같다. 으흠, 생각만 해도 좋은데?

금강 남쪽으로 금남교에서 햇무리교까지 5km에 길쭉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정말 멋진 벚나무길이다. 벚나무 잎이 벌써 하나둘 물들어간다.

## 움켜잡기



텔레비전을 안 보고 사는데 매주 화요일에 하는 〈이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은 가끔 본다. 가족 사이 전쟁 종결! 대한민국에서 최고 핫한 심리상담가 이호선이 온다! 돌려 말하지 않고 따끔하게 뼈를 때리는 '호랑이 관계 해결사' 스타일의 매운맛 솔루션과 따뜻한 힐링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 특징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는다. 방송을 계속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관계가 깨져서 갈등을 하고 싸우는 이유가 '외로워서'인 것 같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움켜잡고 싶은데 배우자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주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못해 줄 때 갈등이 시작되고 그것이 병이 되는 것 같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763회 비학산324(일출봉252m)** 2026.9.4.

**▲제764회 전월산(260m 세종)** 2026.9.12.

**▲제765회 계룡산(관음봉766m 공주)** 2024.9.18



천장골에서 출발하여 삼불봉-관음봉-은선폭포-동학사-주차장까지 12km를 시속 3km 속도로 걸어 4시간 걸렸다. 중간에 김밥 까먹으며 논 시간 30분을 빼면 좀 더 빠르기는 함. 계룡산 갈 때마다 사진을 찍는 명물 '소나무'도 잘 있고, 관음봉 올라가는 444계단도 역시나 힘들었다.

오늘은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계단을 오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100계단마다 메직으로 숫자를 발판 아래 한쪽에 썼다. 그렇게 계단을 세면서 올라오다 보니 마지막 계단은 444계단이었다. 관음봉 표지판에 〈내려가는 계단은 모두 444계단입니다.〉하고 작게 써 놨다. 어떤 사람이 눈이 똥그래지며 어떻게 내려가냐 걱정을 한다. "올라오는 것 보다는 쉽죠."

**▲제766회 노성산(348m 논산)** 20206.9.21

아침에 그녀가 차로 세종터미널에 나를 내려 주어서 버스를 타고 공주터미널 도착하여 이상호 목사님 차로 논산 노성면 애향공원 주차장까지 함께 갔다. 유인학 집사 부부, 송목사 부부, 이상호 목사부부 모두 7명이 산에 올랐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유집사가 안내를 잘했다.

1.9km 약 2km 오르니 정상이다. 사진도 찍고 정상에 있는 정자에서 담소하며 백권사가 준비한 간식도 나누었다. 편한 길로 하산하여 인근에 있는 명재고택과 노성향교와 공자(孔子)의 영상을 봉안한 영당(影堂) 궐리사를 둘러보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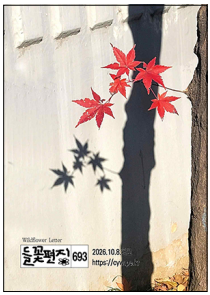
# 우리의 만남은 맛남 입니다~

**①찬이슬이 내릴때쯤 할머니는 참깨털고**

**단풍 들면 뭣하나 그대 내 곁에 없는데**
**저녁 둑길 혼자 걸으며 갈대 꺾어 바람에 날린다**

한로/ 홍사성 『내년에 사는 법』(책만드는집, 2011)

한로(寒露)즈음부터는 서서히 끝물 고추 따거나 고구마를 캐며 가을 추수를 갈무리합니다. 돼지고기에 호박 넣고 지진 찌개와 수수 넣어 지은 뜨끈한 밥을 감나무 아래서 새참으로 먹기도 합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앞에서 무언가가 방해를 하면 딱 멈춥니다. 빛이 멈춘 자리에는 그림자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어둠'이 제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단풍나무와 그림자가 절묘하게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이런 평범한 풍경도 '보는 눈'이 있어야 특별하게 보입니다. (사진:최광열)

**③도서출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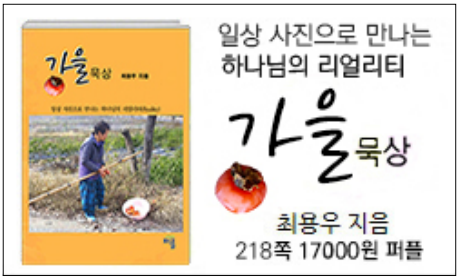
■신간 〈수덕의 삶〉 (햇볕25) 316쪽 17000원 2026.9.18 출간!

107. 가을 묵상 218쪽(컬러) 218쪽(컬러) 17000원 2026.8.28. 퍼플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102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6.9월 재정결산

2026년 9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경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배지윤 배지윤 송순

양회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이진호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한주환

들꽃교회 안디옥교회 월간새벽기도 정릉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25분이 거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볕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볕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볕사역 -인터넷신문 햇볕같은이야기 2026.10.8일까지 8498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108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볕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구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 9월 18일 새로 나온 책

수덕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맑고 밝고 깨끗하며 고요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최용우 316쪽 17000원 퍼플

한국 기독교에는 '기적'이 가득합니다.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수덕(修德)입니다. 한국교회는 '기적에서 수덕(修德)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합일(合一)을 이루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의 전에 도달하는 신앙을 '완덕(完德)'이라고 합니다. 그 완덕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여정을 '수덕(Asceticism)'이라고 합니다.(고전9:24, 빌3:12-14, 딤후4:7)

수덕이란 덕(德)을 닦는 것입니다. 덕이란 맑고 밝고 깨끗하며 고요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바로 수덕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수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롬8:2-3)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수덕'을 더 강조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수덕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1장 침묵 2장 순종 3장 겸손 4장 환대 5장 섬김 6장 수덕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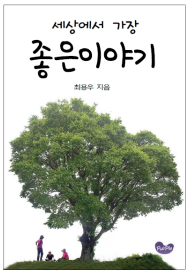

### 마가 예수어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324쪽 15,000원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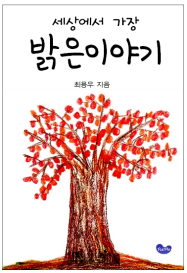

### 누가 예수어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632쪽 28,000원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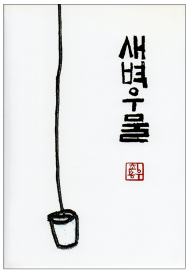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볕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호-1019호까지 4년 분량 1019편의 좋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722쪽 24,000원 퍼플




###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볕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020호-1979호까지 5년분 960편 밝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720쪽 23,900원 퍼플




### 새벽우물

얼어붙은 내 영혼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한 자루 도끼와 같은 책! 총총히 맑은 물 채운 새벽우물! 햇볕 1980호부터 3501호 까지 1422편 단행본 5권 분량을 한권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878쪽 28,700원 퍼플




### 플러스 예화

두란노서원에서 매월 펴내는 큐티 묵상집 월간〈생명의삶+〉〈묵상과적용〉코너에 17개월 동안 썼던 예화 452편을 모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inside 예화집입니다.
490쪽 17,000원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150 세종시 보람1길12 호려울마을2단지 201동 1608호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93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